드론특화 지식산업센터 새이름 '고흥 드론센터' 확정

고흥서 드론 연구·개발 생산 거점공간 의미

의미 단순 명료해 대내외 홍보시 매우 유익

고흥군은 고흥만에 건립 중인 드론 특화 지식산업센터의 명칭을 '고흥 드론센터'로 확정했다.

군은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명칭공모 결과, 총 12개의 명칭이 공모 접수됐으며 그 중 '고흥 드론센터'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이름으로 최종 선정된 '고흥 드론센터'는 고흥에서 드론을 연구·개발하고 생산하는 혁신 거점공간이라는 의미로, 나로 우주센터, 고흥 항공센터의 명칭과 글자수가 일치하고, 의미도 단순명료해 대내 외 홍보 시 매우 유익하다는 점에서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우수작으로는 '고흥만 드론 파크'가 선정되었으며, 선정 결과는 고흥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응모자에 대해서는 시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흥 드론센터 건립이 드론산업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드론기업 집적화를 통해 기업 간 기술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으로 고흥이 드론산업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만에 건립 중인 '고흥 드론센터'는 올해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드론기업 입주공간, 기숙사, 드론체험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입주기업 및 방문객 모두가 만족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광양시 옥곡면 업무협약 체결

아름다운 환경조성 및 깨끗한 수질보전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지사장 김병선)와 광양시 옥곡면(면장 서정옥)이 최근 옥곡 면사무소에서 아름다운 환경조성 및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청결활동.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생활쓰레기 저감 캠페인 등에 함께 동참하기로 했다.

옥곡면 서정옥 면장 과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 황인태 부장은 "공사관리 저수지의 수질보전을 통해 쾌적한 농어촌 환경보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생협력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김철우 보성군수,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주말 회동

현안 사업 적극 지원 요청

김철우 보성군수가 18일 전남 수해현장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주말 회동을 가졌다.

김 군수는 송 대표에게 당 차원에서 수해복구 지원과 보성군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보성군이 제안하고 순천시가 함께하는 △여자만 국가갯벌 해양정원 조성사업(2,500억원), △율포항 국가어항 지정 등이다.

김철우 군수는 송 대표와 여자만 국가갯벌 해양정원 조감도를 보면서 사업 계획과 청사진을 공유했다.

특히, 기후와 환경 부분에서 갯벌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깨끗한 해양생태계를 지속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갯벌을 활용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어항 지정 타당성 조사 결과 개발여건, 관광 현황, 경제성 분석 등 전 분야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우선순위 상위권 지정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어항 총량제로 인해 국가 어항으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보성군 율포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총량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송영길 대표는 "보성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서 "당차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시, 삼복더위에 화로로 달려가는 까닭은?

닭숯불구이·광양불고기·장어구이 등 이열치열 구이음식

광양시가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삼복더위에 이열치열로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는 숯불구이 음식을 소개해 미식가들의 침샘을 자극하고 있다.

광양은 백운산의 풍부한 참숯 덕분에 닭숯불구이, 광양불고기, 장어구이 등 면역력을 높이고 기력을 보충하기에 좋은 다양한 구이음식이 발달했다.

닭숯불구이는 정갈하게 손질한 닭을 그윽한 숯에 구워 기름은 빼고 담백함은 살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민음식으로 다이어트에 좋다.

광양불고기는 얇게 저민 소고기를 청동화로에 참숯을 피워 구워먹는 광양대표음식으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음식테마거리로 선정한 '광양불고기 특화거리'가 있을 정도다.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광양만의 장어구이 역시 불포화지방이 풍부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여름 보양식으로 손꼽힌다.

무엇보다도 닭숯불구이는 '2021 전남 관광사진 공모전' '남도대표음식' 부문 광양시 지정 음식이다.

공모기간은 오는 10월 22일까지로, 광양을 여행하면서 발견한 숨은 관광지나 닭숯불구이를 사진으로 담아 출품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청 남도여행길잡이와 전라남도관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순기 관광과장은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땀을 많이 흘리는 삼복더위에는 허약해진 기운을 보강하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장만해 먹었다"며, "단백질이 풍부한 광양의 다양한 숯불구이 음식은 건강한 여름을 지키는 확실한 선택이다"고 말했다.

이어 "백운산과 섬진강, 봉강, 어치 등 4대 계곡에서 광양의 여름을 만끽하고 그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 사진으로 공모전에 도전해 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여수시, 폭염 대비 '여름철 수돗물 절약 사용' 홍보

사용 폭증 대비 급수대책반 편성

여수시가 여름철 폭염에 따른 물 부족에 대비해 물 절약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폭염기간동안 각 가정이나 관광숙박업소 등에서 물 절약에 적극 나서줄 것을 홍보하는 한편, 지난 16일부터 폭염기간 급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해 유사 시 긴급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긴급복구업체 9개사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시민들의 여름철 수돗물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수돗물 절약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물 절약 세부실천 내용'으로는 화장실 변기에 물병이나 벽돌을 넣고, 양치 시 물컵 사용하기, 샤워시간 단축하기, 적당량의 합성세재 사용하기, 수도꼭지 수압 약하게 사용하기 등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물 사용이 편리해 물의 소중함을 잊기 쉽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이면 물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폭염기간 수돗물 절약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수=오상호 기자